
17/04/09(주) 주일예배 / 제목 : 베드로의 과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눅 22:54~62) p.136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과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성경귀절도 함께 병행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아마도 그 분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배신과 아픔을 당해 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철학 같으나 너무 삭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시 146: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아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남편인가요? 부모인가요? 자식인가요? 친구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좋았던 사이도 한 순간에 남남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무촌이라는 말하는 부부사이도 하루아침에 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이가 등을 돌리면 철천지원수가 됩니다. 비단 부부사이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생활고를 핑계로 내버려 죽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사랑을 할 수 있으나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분 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찻찻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주님을 믿고 따르던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사건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12명 중에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당연하듯이 대하십시오. 심지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베드

로 사건을 4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다 들추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베드로가 무너진 원인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본론 / 베드로의 과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치도 않는 듯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더 강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니까 자기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증명하고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의 말은 한결같이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고백은 입으로 장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점은 없을까요? 물론 확신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이대면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평평 나자빠집니다. 평상시에는 베드로의 말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 뽕뽕 칩니다.

그러나 막상 생사가 달린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무너져 주저앉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엉겁결에 자신도 모르게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위협에 대한 보호본능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그토록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베드로가 왜 갓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을 피하여 도망쳤을까요? 그것은 그 심령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갓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폭력사건을 저지른 장본인이 자기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살인미수죄” 를 범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가 그 피해자인 대제사장의 집 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임합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모습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때문

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난, 핍박,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시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담대함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신앙,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과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41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 26:40~41)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담할 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겻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라고 여러 번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으레 하는 소리로 지나쳐버렸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주변의 사람들로 부터 “영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세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으레 하는 소리로 듣고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 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경고가 세 번이나 있었는데 세 번 다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베드로는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설마?’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내가 그럴려구? 말도 안돼” 그럴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듯이 결국 큰 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거듭되는 세 번의 경고에도 잠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했으니 밤에 얼마나 잠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적전쟁에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

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잠 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절대절명의 상황이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을 쫓아가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시작도 금식기도로 시작했고, 마무리도 갓세마네 기도로 마무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총 중에 하나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느 때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상시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생활화가 안되면 위급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 안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기도를 세 번씩이나 요청해도 안합니다. 어찌보면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생활화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해야지"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즉각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 반드시 따라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힘쓰라” 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그냥 때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기도 생활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예배에 나오시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기상하자마자 잠시나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곤에 찌들어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만 하는 직장에는 쫓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회사에 가듯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되는 일이라면 힘쓰라고 했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깐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기도나 예배가 다른 것 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지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2.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을 보십시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기 "멀찍이" 라는 단어 안에 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실상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표현한 말이지만 웬지 마음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변함 없으시지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어찌 보면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군병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끌려가는 것이 무기력한 예수님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갓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주님을 실망시킨 것이며 체포되는 예수를 남겨 둔 채 도망한 것들이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멀어져 버린 마음이 결국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쉽게 부인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주님과 3년 동안 그림자처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물위로 걸으실 때 그도 걸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도 그 곁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고백하던 그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더욱이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좇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렵게 살 때에는 예배시간 때마다 기도하는 심령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흥회도 많았고 사경회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늘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들을 보십시오. 갈수록 교인들이 줄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아무런 저항 없이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의 그 아픔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궁지에 몰렸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매일 경건생활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을 더 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통곡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베드로의 과오를 통하여 종려주일의 의미를 되새깁시다.

요약정리 / 베드로의 과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주님과 마음이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